



“부활에 대한 믿음은 우리에게 죽음을
넘어 형제적 일치에 이르게 한다...”.
(생활규칙 24 항)



2019 년 3 월 2 일 18 시(현지 시간)에
39 년 수도생활을 하신 우리
마리나 데 헤수스 빌라밀 페나 수녀님이
보고타에서
향년 65 세로 성부의 집으로 돌아가셨습니다.

복음환호송에서 연중전례는 “**전에도 계셨고 오시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영광**”을 우리가 외치게 하고 우리는 마리나 데 헤수스 수녀님의 빠스또렐라 생명과 성소를 통하여 하느님께 영광을 드리며 수녀님을 그분의 자비에 맡겨드립니다.

마리나 데 헤수스는 1953 년 10 월 25 일에 보야카(콜롬비아)에서 태어나셨고 1953 년 11 월 19 일에 티냐카 본당에서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마리나는 9 남매 중 다섯째이며 외동딸입니다. 1975 년 11 월 22 일에 보고타 공동체에 입회하여 콜롬비아 빠스또렐라의 첫 세대가 출발하게 했습니다. 1978 년 4 월 16 일에 수련기에 들어가고 위임구의 장상이며 콜롬비아 공동체를 창시한 이탈리아 수녀들 중의 하나였던 레오니아 보이토 수녀님의 손에서 1980 년 1 월 6 일 첫서원을 하였습니다.

마리나 수녀님은 보고타에서 유치원 교사로 1 년간 머무른 뒤에 1981 년에 쿠쿠타의 주교좌 성당에서 사목사명을 수행하기 위해 초대받았습니다. 그 장소는 초창기 빠스또렐레들이 이탈리아에서 도착하는 것을 보았던 곳이었습니다. 1986 년에는 본당의 학교에서 협력하는 것 뿐만 아니라 메델린으로 이동하여 특히 청년사목과 교리교육 영역에서 사목사명을 커다란 열정으로 사셨습니다. 동시에 그 시기에 마리나 수녀님은 종교학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하여 화해의 성사에 관한 논문 초고를 마무리하셨습니다. 1990 년에서 1995 년까지 이미 언급한 공동체의 장상으로도 계셨습니다.

1996 년에 마리나 수녀님은 성소사목을 수행하기 위하여 보고타로 돌아오셨습니다. 한편 1998 년에서 2002 년까지 통솔과 콜롬비아-베네수엘라-멕시코 위임구의 비서로 임명되었습니다. 2000 년 매우 가난한 지역에 사도직 건물을 세우기 위하여 은인을 찾는데

아낌없이 내어주려 쿠쿠타로 돌아왔습니다. 뿐만 아니라 마리나 수녀님은 양성 영역에서도 공헌을 하셨습니다. 1992 년에서 1995 년까지 그리고 2002 년에 유기서원자 양성 책임을 맡으셨습니다.

2004 년 일정기간 성소사목에 특별한 방식으로 일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양성을 위해 성서와 교리를 사용하셨고 부모님들, 청년들, 어린이들과 양성 만남을 촉진하셨습니다. 아드베니앗(Adveniat) 모임을 장려하여 공동체 자매들과 함께 양성, 성소의 여러 활동과 지역의 유용한 레크레이션 활동에 양성소의 공간을 내어주었습니다.

마리나 수녀님은 선교적이고 본질적이고 관대하고 책임감 있고 창의적인 정신을 지닌 수녀님이었습니다. 수녀님이 머무르게 되는 어느 장소에서든 그곳의 하느님 백성의 필요에 경청하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었고 섭리의 중개자였습니다. 기도의 사람이며 기쁜 일과 시험의 순간에도 하느님의 뜻을 계속해서 찾는 사람이었습니다. 2009 년에 암과 싸움을 시작했는데, 처음에는 이긴 줄 알았지만 2017 년에 파킨슨 병이 온 듯, 산책과 기억에 문제가 생겨 2018 년 9 월에 멕시코에서 보고타로 다시 들어올 필요가 있었습니다. 2019 년 1 월 정밀검사 후 뇌암 진단을 받은 지 몇 주 만에 급격히 증세가 악화되었습니다.

우리는 바오로 가족에게 감사드리고 특히 이 시련의 시기에 마리나 수녀님을 영적으로 지탱해준 바오로인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마리나 수녀님에게 최대한 편안함을 줄 수 있는 모든 것을 제공하며 수녀님을 사랑과 헌신으로 동반해 주신 공동체 수녀님들께 특별한 감사를 드립니다.

선교열정으로 당신의 생명을 내어주신 마리나 수녀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와 온 교회를 위하여 쇠신된 사목적 열정과 선하고 거룩한 성소자들을 보내주시도록 전구해 주소서.

아민타 사르미엔토 뿌엔테스 수녀
총원장

2019 년 3 월 2 일, 알바노 라찌알레